


|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 | <h1>보도자료</h1> | 2016. 8. 1(월) |   |
|   |               | 작 성<br>문 의    |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<br>과장 하종목 / 경정 이인표<br>(Tel. 044-200-2085)<br>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<br>경정 박준성<br>(Tel. 02-700-2246) |
| * 엠바고 : 8.1.(월) 20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<br># 공동배포 : 서울경찰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|

##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

- 황 총리, 서울 서대문경찰서서 관내 안심귀갓길·안심화장실 방문
  - 경찰의 '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' 현장추진 상황 직접 점검·독려
-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1일(월) 저녁,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내(서대문구 대신동) 안심귀갓길·안심화장실을 방문하여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을 직접 점검하였다.
- \* (참석)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, 강대일 서대문경찰서장 등
- 황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“강남역 살인사건” 등이 발생한 이후, 총리주재로 「법질서관계장관회의」를 개최하여 수립한 “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”의 현장추진 상황을 점검·독려하기 위한 것이다.
- 동 대책에 따라, 경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“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(8.31까지 3개월)”을 전개하고 있으며
- 스마트 국민제보 앱(App),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 불안요인을 파악하여,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“국민제보 신속대응팀” 등을 통해 신속히 예방 및 보호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.

□ 황 총리는 이날 여성안심귀갓길\*을 직접 걸으며, 여성들이 귀가 시간대 주로 이용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순찰과 주변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

\* 버스정류장·역에서 주거지까지 이르는 노선을 선정, 방범시설물 설치 등 주변 환경 개선 및 귀가시간대(20-02시) 순찰강화 등을 통해 여성 안전 확보

○ 이후 인근 여성안심화장실을 방문하여, 위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가 되는 비콘(Beacon)\* 시스템 작동 시연 등을 관람하였다.

\* 블루투스 기반 근접 무선통신망으로 스마트폰 긴급신고앱(APP)과 연결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

□ 황 총리는,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데 대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, 범인이 범행 시도 시에는 즉각 출동해 검거·진압하는 등 여성을 포함한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,

○ 국민들이 두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(참고) 1. 여성안심귀갓길 개요  
2. 여성안심화장실 개요

## 참고 1

## 여성안심귀갓길 개요

### □ 사업 개요

- 최초 시행 : '13. 9월, “밤길 여성 안심귀가 종합대책” (경찰청)
- 대상 노선 : 서대문서 관내 17개소 (서울 전체 517개소)
- 사업 내용
  - 버스정류장·역 등에서 주거지까지 이르는 길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선정, 귀가 시간대(20-02시) 순찰강화 및 방범시설물 설치 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 안전 확보

### □ 추진 사항

- 지자체와 협업, △노면표시 △112 신고위치 안내표지판 △LED 보안등 △방범용 CCTV 등 방범시설물 설치 및 관리카드 제작



노면표시



112 신고위치 안내표지판

-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,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 가용 경력 총동원 귀가 시간대 순찰 강화
- 경찰서 홈페이지, 지도 제작 등 활용 여성안심귀갓길 홍보

## 참고 2

## 여성안심화장실 개요

### □ 사업 개요

- 최초 시행 : 2016. 6. 10. (서울 최초 '16.5월, 강동구)
- 대상 지역 : 서대문 공중화장실 18개소 (서울 전체 165개 화장실)
- 총 사업비 : 7,308,000원 (서울 전체, 22,900,000원)
  - 비콘\* (18개소) : 1,188,000원 (서울 전체 165개소, 11,780,000원)
    - \* 반경 50~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메시지 전송하는 근거리 통신 기술
  - 비상벨 (12개소) : 6,120,000원 (서울 전체 165개소, 11,120,000원)
- 사업 내용 : 블루투스 기반 근접 무선통신망 비콘(Beacon) 설치



### □ 작동 방법

- 휴대폰에 ①'경찰 안심신고 서울 나들이 앱' 설치 후 ②블루투스 (근접 무선통신망) 기능 활성화
- 위급 상황 발생 시 ③휴대폰 전원버튼을 5회 이상 누르면 112 및 보호자에 화장실 위치 등 자동 문자신고 전송

